

2025.07.17.(목) Signal Diges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Signal Report'의 축약 버전으로 전달 시간외 특징주와 당일 주요 이슈까지 한 장의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 TODAY ISSUE >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美 '지니어스법' 통과 눈앞...스테이블코인 시대 본격 열리나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지니어스법에 반대한 일부 하원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짧은 논의 끝에 이들 모두 내일(17일) 찬성표를 던지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지니어스법의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은 이번주 크립토 위크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앞서 미 하원은 최근 암호화폐 법안을 집중 심의하기 위해 이번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했다. 미 하원은 이번주 지니어스법 외에도 '클래리티 법(암호화폐 시장구조법)'과 '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 표결이 부결됐지만, 빠른 시일 내 절차 표결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주:** 카카오페이, 더존, 다날, 아이티센글로벌, 헥토파이낸셜, 쿠콘, NHN KCP, 한국정보인증, 미투온, KG모빌리언스, 핑거, 넥서스, 네오위즈, 컴투스, 위메이드, بانک웨어글로벌, 유라클,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 한화투자증권, LG씨엔에스, 케이씨티, 아톤, E8, 딥마인드, 형지글로벌

#스테이블코인 #OBDIA

"3초면 끝" 해외송금...은행 코인, 이르면 내년 현실로

국내 13개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일본 한 스타트업과 한·일간 스테이블코인 맞교환 송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류창보 / OBDIA 회장·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 : 원래 일본으로 송금을 하면 원화를 달러로 한 번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수료가 많이 나오게 되고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 (스테이블코인으로) 원화랑 엔화랑 바로 맞교환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그만큼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정부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고, 소속 안도걸 의원은 발행 요건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 **OBDIA 회원사:** LG씨엔에스, 아이티센글로벌, 아톤, 라온시큐어
- **관련주:** 아톤, LG씨엔에스, 아이티센글로벌

#삼성바이오에피스 #익스프레스스크립츠 #CVS케어마크 #공급 계약

350조 '슈퍼갑' 뚫었다...'사상 최초' 삼성의 놀라운 반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미국 1위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인 익스프레스스크립츠, 2위 CVS케어마크와 각각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PL 방식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익스프레스스크립츠는 '쿠엘런트', CVS케어마크는 '코다비스'라는 자체 브랜드로 연내 미국 전역에 출시한다.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PBM '빅3' 업체 중 두 곳과 한꺼번에 PL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PBM이 수만 개 약국 네트워크 공급 물량의 90%가량을 PL 제품으로 채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간 10조원 규모 시장에서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관련주:** 바이넥스,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마이크로디지털, 아미코젠, 시너지이노베이션

#이재용 #대법 선고

이재용 회장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될까...대법 선고 17일 오전 11시 15분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당시 회계 부정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오전 나온다.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돼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반도체 등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전망이다.

- **관련주:** 레인보우로보틱스, 엠로, 아남전자, 에이테크솔루션, 미래반도체, 가온칩스, 에이디테크놀로지, 어보브반도체, 뉴엔AI, 씨케이솔루션, 피아이이, 와이씨캠, 필옵틱스, 램테크놀러지, 캠티로닉스, 제이엔티씨,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삼성전자 #반도체 #美 테일러 공장

[단독]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美 테일러 간다...빅테크 수주 기대(해당기사는 언론사 사정으로 삭제됨)

이번에 파견할 인력은 공정, 장비, 수율, 품질 등 파운드리 양산 전반에 관련된 인력들로 파악됐다. 제품 생산을 위한 '셋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객·협력사 포럼을 비공개로 돌리고 외형도 대폭 축소하는 등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견이 재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북미 빅테크간 유의미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전 부회장은 엔비디아 등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와의 만남도 진행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 **관련주:** 제이엔비, 워트, 에프에스티, 코미코, 엑셈, 코아시아, 캠티로스, 한솔아이원스, 레이크머티리얼즈, 한양이엔지, 엘오티베컴, 싸이맥스, 네패스, 피에스케이, 유진테크

#트럼프 관세

트럼프 "한국, 시장 개방 가능할 수도...반도체 관세 예정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주:** 미트박스, 한일사료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거래대금 (단위: 억)

●유니테스트 (과리율 +8.56%)

홍콩 증권사 "삼성전자 HBM4 수율 50% 수준으로 개선, 양산 위한 대규모 투자 예정"

[시간외 특징주] 유니테스트, HBM 수요 급증 기대에 급등...젠슨 황 발언이 촉매됐다

유니테스트는 최근 HBM4용 웨이퍼 번인 장비의 성능 평가를 SK하이닉스로부터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유니테스트는 SK하이닉스의 장비 공급사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성능평가 통과 이후 양산 테스트와 발주 여부에 따라 향후 수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니테스트 외에도 다이아(DI) 등 복수의 업체들이 HBM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한편 유니테스트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용 검사장비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주력 제품은 번인테스터와 테스트 소터(Test Sorter) 장비다.

●**쿠콘 (괴리율 +4.14%), 웹케시 (괴리율 +2.31%) / 미투온 (+2.23%)(3) /NHN KCP (+1.4%)(29)**

美의회, 스테이블코인법 내일 재표결...코인株 반등할까(종합)

(25.07.16)쿠콘, 씨클·테더와 스테이블코인 전략적 협업 논의 中...상장사 최초 기대감 '솔솔'

쿠콘은 오는 23일 예정된 IR을 앞두고 거래소에 제출한 IR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를 위한 전략적 제휴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씨클과 테더를 기재하기도 했다. 쿠콘은 이미 테더와 씨클과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쿠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될 순 없겠지만 현재 전략적 협업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쿠콘은 오는 23일 예정된 기관 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이번 전략적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파트너사와 협업 범위를 일부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기술투자 (괴리율 +2.45%)**

[코인 시황] 비트코인 12만달러 재도전...美 크립토 법안 재표결 기대감에 반등

●**에코아이 (괴리율 +2.21%)**

李대통령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해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나중에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코난테크놀로지 (괴리율 -13.01%)**

코난테크놀로지, 291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코난테크놀로지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91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예정 발행가액은 2만9050원으로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일승 (+9.91%)(2)**

[시간외Y] 일승 '상한가'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개별 LNG 계약 물량은 통상 공개되지 않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중장기 계약 물량만 연간 100만톤에서 최대 3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번 가스공사와 미국 LNG 업체 간 도입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최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승은 조선 및 LNG 관련 기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선박용 환경장비, LNG 의장재, 탄소강관·스테인리스강관(Pipe Spool) 등을 생산하고 있다.

●**아우토크립트 (+2.78%)(49)**

(25.07.16)[종목탐구] 아우토크립트, 현대차·GM·엔비디아 손잡고 국내 넘어 '북미 V2X 보안' 시장 진입

아우토크립트는 현재 국내 협력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사업 전 구간에 V2X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아우토크립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삼성, LG, GM,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엔비디아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 및 전장 부품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메인 고객사는 현대차이며, 엔비디아와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마·개별 일정 Check>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이재용 회장님 상고심 선고 / 07.17

△TSMC, 2분기 전체 실적 및 연간 전망 발표 예정 / 07.17

△美크립토 위크 / ~07.18

△현대바이오 - 현대ADM 암치료 가짜 내성 관련 연구 발표 / 07.21

△美, AI엑션데이 예정 / 07.23

△정부,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 07 中

<Signal Digest>

[주간 일정]

7월 18일 금요일

미국) 6월 소매판매

미국) 7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넷플릭스, GE 에어로스페이스 실적발표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

TSMC 실적발표 ★

이재용 회장 상고심 선고★

미국, 크립토 위크(~18일)★

금융당국, 업비트 과태료 수위 결정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케이지에이, 757,425주(6.26%) 보호예수 해제

엔알비 공모청약(~18일)

[경제 일반]

코스피, 美물가 우려·차익매물에 3,200선 내줘...코스닥 약보합(종합)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946억원, 7조32억원이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정규마켓의 총 거래대금은 6조9천716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오를만큼 올랐다"...'하락 베팅' 몰리는 개미들

[단독] 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검토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TS 거래량 평가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론되는 방법은 '비조치 의견서'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 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 조치 여부를 답변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다. 통상 법의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또는 법 제정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조치 의견서가 활용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ATS의 거래량은 KRX 6개월 평균 거래량의 15%, 단일 종목의 거래량은 3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위반 시 거래가 중단되지만 이를 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달 남은 MSCI 리뷰...상반기 주도주 '지급조방원'서 후보군 다수 배출

MSCI(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정기변경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수 편입 종목으로 △LIG넥스원 △두산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이 거론된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에 따라 편입 후보군으로 꼽히는 종목이 늘었다.

[미중 패권전쟁]

"미군 장성, 대만 연례 군사훈련 참관...해안지역 방어물 주목"(종합)

China looks to Africa as testing ground for global roll-out of yuan

중국, 아프리카를 위안화의 글로벌 출시를 위한 시험장으로 보고 있다

[국제-미국]

Stock market today: Live updates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 해임에 가까워지면서 S&P 500 지수가 적자로 떨어집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연방준비제도 의장직에서 해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루 중 최저치로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0.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00포인트, 0.5% 하락했습니다.

미국 6월 도매물가 전월대비 보합...서비스 가격 하락 영향

JP모건 CEO, 트럼프에 돌직구 "연준 갖고 장난치지 마라"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가 2분기 실적 발표 후 비대면 언론 간담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연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피츠버그에 AI 관련 127조원 투자...中 기술 추월 막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920억 달러(약 127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관련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머스크 트럼프에 한방 먹이나...엡스타인, 마가를 흔들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엡스타인 사건 관련 법무부 기록과 유명 인사 리스트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MAGA 지지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디 장관의 결정을 두둔하며, 이들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엡스타인 관련 음모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음모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의해 불붙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보효율부(DOGE)의 사실상 수장에서 물러난 머스크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ABA)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지난달 엑스(X, 구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에 있다. 그게 진

짜로 그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라고 올렸다.

[국제-유럽]

英 6월 CPI 전년비 3.6% 상승...예상치 상회

EU, '116조원 대미 2차 보복 관세' 목록 작성...자동차·위스키 포함

블룸버그 통신 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약 720억유로(약 1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보복조치 적용 대상 목록을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집행위는 지난 14일 보복 대상 품목이 담긴 206쪽 분량의 보고서를 27개 회원국에 공유했다. 여기엔 보잉 항공기와 기계 및 화학, 플라스틱 제품과 의료기기, 와인 및 기타 농산물 등이 포함됐다. 폴리티코가 처음 확인한 초안을 보면 보복 관세 규모는 산업재 657억유로(약 106조1000억원), 농산물 64억유로(약 10조3000억원) 상당이다. 단일 품목으로 미국산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규모가 약 110억유로(17조 7400억원)로 가장 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proposes raising defense funding in 2-trillion-euro budget

EU, 2조 유로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 제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은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도전에 대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아직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풍산, 코스트테크놀로지, SNT다이내믹스, 엠앤씨솔루션, RF시스템즈, 퍼스텍, 한일단조, 빅텍, 스펜코, 대성하이텍, 파이버프로, 포메탈, 우리기술, 삼현, 평화산업, 휴니드**

푸틴에 등 돌린 트럼프...유럽 지도자들 집요한 설득노력 '효과'

메르츠 총리의 보좌진은 WSJ에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러시아를 명확히 가해자로 지목하고 무기 지원 재개에 동의한 것이 가장 큰 외교적 성과"라고 말했다.

트럼프 "우크라, 모스크바 공격 안 돼"...장거리 무기 지원 부인

크렘린궁 "서방의 장거리무기 우크라 공급 예의주시"

[국제-중국]

中 상반기 외국인 출입국 30% 늘어...무비자 입국은 54% 급증

[원자재]

Oil prices slip as investors weigh trade war impact

투자자들이 무역전쟁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유가 하락

수요일 유가는 중국 원유 소비 강세 조짐이 미국 관세의 경제적 영향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서 1% 가량 하락했습니다.

[단독] 미국산 LNG 수입 '최대 2배'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4월 말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고 연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old gains on softer dollar; U.S. PPI data in focus

지정학적 불안으로 안전자산 금이 상승세

수요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중동의 지속적인 분쟁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했고, 미국 생산자물가 하락도 지지력을 더했습니다.

[정부정책]

與 김현정, '자사주 3년 이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트럼프 "한국, 일본과 달리 시장 개방 의향... 반도체 관세도 곧 부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언급은 일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관세 서한'이 바로 합의"라며 "일본은 절대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율 25%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과 자동차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해 왔다. 그는 반면 "한국은 시장 개방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될지 곧 알려주겠다"며 양국 간 물밑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한국, 시장 개방 가능할 수도...반도체 관세 예정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주: 미트박스, 한일사료**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재용 회장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될까...대법 선고 17일 오전 11시 15분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당시 회계 부정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오전 나온다.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돼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반도체 등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전망이다.

- **관련주: 레인보우로보틱스, 엠로, 아남전자, 에이테크솔루션, 미래반도체, 가온칩스, 에이디테크놀로지, 어보브반도체, 뉴엔SI, 씨케이솔루션, 피아이이, 와이씨캠, 필옵틱스, 램테크놀러지, 켐트로닉스, 제이엔티씨,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단독]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美 테일러 간다...빅테크 수주 기대(해당기사는 언론사 사정으로 삭제됨)

이번에 파견할 인력은 공정, 장비, 수율, 품질 등 파운드리 양산 전반에 관련된 인력들로 파악됐다. 제품 생산을 위한 '셋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객·협력사 포럼을 비공개로 돌리고 외형도 대폭 축소하는 등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견이 재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북미 빅테크간 유의미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전 부회장은 엔비디아 등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와의 만남도 진행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 **관련주: 제이엔비, 워트, 에프에스티, 코미코, 엑셈, 코아시아, 켐트로스, 한솔아이원스, 레이크머티리얼즈, 한양이엔지, 엘오티베콤, 싸이맥스, 네패스, 피에스케이, 유진테크**

TSMC, 내년 2나노 생산능력 2배 늘린다... 삼성전자는 빅테크 수주 '총력'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올 하반기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2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을 통해 양산할 예정이다.

TSMC는 내년 2nm 공정의 생산능력을 2배가량 늘릴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TSMC의 하반기 2nm 공정 생산능력은 웨이퍼 기준 월 4만~5만장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2nm 공정을 통해 양산되는 첫 번째 제품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되는 AP다.

이 같은 이유로 TSMC는 2nm 공정과 제조 이후 제품을 완성된 형태로 조립하는 첨단 패키징(CoWoS)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TSMC는 2nm 공정과 마찬가지로 CoWoS 생산능력도 내년에 2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 **관련주: 솔브레인, 에이직랜드, 인텍플러스, 이오테크닉스, 에스앤에스텍,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코미코, 신성이엔지, 레이크머티리얼즈, 샘씨엔에스, 리노공업**

차량에도 AI 탑재 확산...반도체 소부장 기회 잡는다

이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선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강소기업 에이직랜드(445090)는 차량용 반도체 고객사로 4개사를 확보했다.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인 텔레칩스(054450)는 올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절반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관건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가 막대한 연산량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글로벌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퀄컴,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 등이 선점한 상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비싼 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은 NPU에 대한 완성차 업계의 잠재 수요가 상당하다"면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NPU 기술을 빠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주: KEC, 한국전자홀딩스, 코스텍시스, 나노씨엠에스, 큐알티, 디아이티, 유니온머티리얼, 알에프세미, 아이에이, 하나머티리얼즈, 엠케이전자, 코아시아, 아남전자, 텔레칩스, 에이디테크놀로지, SFA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제주반도체, 넥스트칩,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케이알엠, 시지트로닉스, RF머티리얼즈, 이미지스, 예스티**

'中 재진출' 선언한 젠슨 황, "SK·삼성 미래 유망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미래가 매우 유망한 회사들입니다."기자회견을 연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고대역폭메모리(HBM), 그래픽더블데이터레이트(GDDR), 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LPDDR)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메모리 3사 모두 엔비디아의 훌륭한 파트너인 만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ASML, 깜짝 실적에도...CEO '내년 성장 불확실' 발언에 주가 6%↓(종합)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AI 고객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2026년 성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푸케 CEO의 발언 여파로 ASML 주가는 유럽증시에서 6.32% 폭락한 661.50유로에 거래됐다.

[자동차]

국산 전기차 직접 챙긴 이재명 "보조금 정책 살펴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그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국 기업을 배 불리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차전지]

[단독] "중국산 탑재합니다"...기아 내수용 전기차에도 中배터리 쓴다

기아가 이르면 9월 국내 출시 예정인 준중형 전기차 EV5에 중국기업 CATL의 삼원계 배터리를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EV5에 중국 CATL이 제조하는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방식의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LFP 배터리는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는 국산을 쓰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다.

- **관련주:** 대보마그네틱, 대진첨단소재, 씨아이에스, 서진오토모티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토비스

연기되는 파나소닉발 韓 양극재 수주...3Q 마무리 가능성 거론 [소부장박대리]

파나소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양극재 4사와 북미 배터리 공장 생산을 위한 양극재 공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수주 실제 계약 논의를 진행하던 일부 양극재 업체는 공급계약 체결 공시 시점을 작년 말에서 올해 상반기 말, 다시 올해 말로 연장하기도 했다. 업계는 파나소닉으로 향할 양극재 공급 협의회가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2170 등 기존 주력 제품을 비롯해 4680 등 차세대 배터리향 수요가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파나소닉과의 계약이 3분기 중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력 / 에너지 / CO2]

李대통령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해야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나중에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월께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 등의 계획을 담은 '제4차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확대 강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주:** 에코아이, 에코프로에이치엔, 한솔홈데코, SGA솔루션즈

[단독] 국산 20MW급 해상풍력 설치선 닛 올린다

16일 업계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평가기술원 등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 중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연구개발(R&D) 과제를 공고한다.

현재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등 국내 조선사들로부터 수요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해상풍력 터빈 용량은 10MW를 훌쩍 넘어 15~20MW를 바라보고 있다. 이번 WTIV의 목표 설치 용량 또한 20MW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위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장거리 전력망 구축 사업 에너지고속도로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라 해상풍력 설치선 기술개발과 지원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 **관련주:** 씨에스윈드, 씨에스베어링, 유니슨, 대명에너지, 동국S&C, 우리기술, 태웅, 서암기계공업, 우림피티에스, 삼영엠텍, 포메탈, HD현대일렉트릭, 대창솔루션, 세진중공업, 대한전선, 케이피에프, 삼일씨엔에스

"시장 판도 바꿀 기술인데"...초전도 케이블 만들고도 규정없어 못 쓰는 韓

LS전선은 2019년 세계 최초로 서울 금천구 구로변전소~가산디지털단지 구간(약 1km)에 초전도 케이블을 실제 전력망에 적용해 상용 운전을 시작했다. 기존 구리선 대비 송전 손실을 2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절감

했다. 실제 전력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상시 운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세계 초전도 케이블 첫 상용화 사례로 평가받는다. 초전도 전력시스템은 이처럼 첫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전망을 구축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한전 변전소에 케이블 접속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접속해야만 한다. 하지만 초전도 전력시스템은 일반화된 기자재가 아니다 보니 약관에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민지 LS일렉트릭 박사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약관을 변경해 초전도 송전망에 효과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행히 최근 한전 역시 초전도 전력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LS전선·LS일렉트릭·한국전력 3사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가평군에 조성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에 세계 최초로 초전도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 **관련주: 서남**

"이러니 한국산 쓸 수 밖에"...먼지 한톨 없는 K케이블, 납기는 美경쟁사 절반

현재 미국 전력망은 70% 이상이 25년 이상 돼 노후한 상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수요 폭증으로 전력 케이블 시장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변압기 다음은 배전 제품" [CEO&스토리]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는 "올해 매출 목표인 3조 8918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보인다"며 "최소 3년간은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1년 1조 806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2조 1045억 원, 지난해 3조 3223억 원으로 매출 규모를 꾸준히 키워왔는데 수주 잔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상승세가 적어도 3년은 지속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수익성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회사는 2021년 97억 원에서 2022년 1330억 원, 2023년 3152억 원, 지난해 669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영업이익률 20%를 유지하면 올해 7500억 원에 이어 2028년에는 '1조 원 클럽' 가입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AI / 로봇]

젠슨황 "中 AI는 월클...10년내 제조업 로봇팀 투입"

손정의 "AI 비서 10억개 만들어 업무 자동화"...노동 대전환 예고

[신기술 / IT]

샌즈랩, AI 기반 보안자동화 기술 3건 미 특허청에 등록

[BIO / 의료AI]

350조 '슈퍼갑' 뚫었다...'사상 최초' 삼성의 놀라운 반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미국 1위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인 익스프레스스크립츠, 2위 CVS케어마크와 각각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PL 방식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익스프레스스크립츠는 '쿠엘런트', CVS케어마크는 '코다비스'라는 자체 브랜드로 연내 미국 전역에 출시한다.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PBM '빅3' 업체 중 두 곳과 한꺼번에 PL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PBM이 수만 개 약국 네트워크 공급 물량의 90%가량을 PL 제품으로 채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간 10조원 규모 시장에서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관련주: 바이넥스,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마이크로디지탈, 아미코젠, 시너지이노베이션**

알테오젠, 'ALT-B4' 美 물질특허 등록...전태연 부사장 "기술 독창성 인정" (전일 장중 기사)

알테오젠이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인 '하이브로자임(개발코드명 ALT-B4)'의 미국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코인 / STO]

美 '지니어스법' 통과 눈앞...스테이블코인 시대 본격 열리나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지니어스법에 반대한 일부 하원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짧은 논의 끝에 이들 모두 내일(17일) 찬성표를 던지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지니어스법의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은 이번주 크립토 위크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앞서 미 하원은 최근 암호화폐 법안을 집중 심의하기 위해 이번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했다. 미 하원은 이번주 지니어스법 외에도 '클래리티법(암호화폐 시장구조법)'과 '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 표결이 부결됐지만, 빠른 시일 내 절차 표결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주:** 카카오페이, 더존, 다날, 아이티센글로벌, 헥토파이낸셜, 쿠콘, NHN KCP, 한국정보인증, 미투온, KG모빌리언스, 핑거, 넥서스, 네오위즈, 컴투스, 위메이드, بانک웨어글로벌, 유라클,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 한화투자증권, LG씨엔에스, 케이씨티, 아톤, E8, 딥마인드, 형지글로벌

"3초면 끝" 해외송금...은행 코인, 이르면 내년 현실로

국내 13개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일본 한 스타트업과 한·일간 스테이블코인 맞교환 송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류창보 / OBDIA 회장·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 : 원래 일본으로 송금을 하면 원화를 달러로 한 번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수료가 많이 나오게 되고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 (스테이블코인으로) 원화랑 엔화랑 바로 맞교환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그만큼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정부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고, 소속 안도걸 의원은 발행 요건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 **OBDIA 회원사:** LG씨엔에스, 아이티센글로벌, 아톤, 라온시큐어
- **관련주:** 아톤, LG씨엔에스, 아이티센글로벌

[단독]금융당국 "조각투자 플랫폼, 발행·유통 분리"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수익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를 분리하고, 다수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한해 제한적으로 자체 발행 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초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달라진 조각투자 수익증권 관련 인허가 정책을 안내하며 의견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해 기존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에서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었다. 오는 9월부터 신탁수익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플랫폼 인가가 개시될 예정이다.

- **관련주:** 한국정보인증, 핑거, 갤럭시아머니트리, 갤럭시아에스엠, بانک웨어글로벌, 서울옥션, 케이옥션, 아톤, 유라클, 아이티아이즈, 아이티센글로벌

위믹스페이에 법정화폐 결제 기능 추가된다...'롬: 골든에이지'에 적용

위메이드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가 위믹스페이에 법정화폐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결제만 지원했는데 법정화폐 결제를 추가하면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 내달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출시될 예정인 '롬: 골든에이지'에도 위믹스페이 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법리스크 해소' 장현국 넥서스 대표 "중요한 소식 나올 것"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인허가 '적신호'...제재 리스크

[IP/엔터]

금융당국,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검찰 고발...새정부 첫 강력 제재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산 / 국방]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 美 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주요공시 / M&A]

코난테크놀로지, 291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엔알비, 공모가 2만1천원 확정...희망 범위 상단

모듈러 건축 기업 엔알비가 공모가를 2만1천원에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뉴로핏, 청약 경쟁률 1천923대 1...증거금 6.7조원

뇌 질환 진단·치료 인공지능(AI) 기업 뉴로핏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1천92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티나, 공모가 1만4천원 확정...수요예측 경쟁률 1천199대1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생명과학 기업 프로티나는 공모가를 희망가 범위 상단인 1만4천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